

참생명, 참위로, 참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요한복음- 이사야 9:6, 요한복음 1:1-3

정윤돈 목사님

*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준커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한 영육간의 문제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도 중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놀랐던 일이 있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더라.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짧게 ‘성삼위’라고 부르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삼위시면서 일체라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사탄문제, 죄문제, 지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며 전도했다. 지금 교인들이 핍박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지고 전도했다. 초대교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았다. 그러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하니 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아리우스파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논증하고 교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니케아회의를 소집했고, 회의를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결론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다.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지는 사실이다. 아리우스파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진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증인은 착하게 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더 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을 때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믿어진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씩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의 틀이 깨지기 시작한다. 특히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낮고 영혼이 열려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는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으면 은혜의 단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 찬양을 듣고도 구원을 받는다. 영접기도를 입으로 따라하기도 하지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다. 갓난아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은 영혼이 열려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아멘’ 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두드러질까? 그들이 어려움 속에 마음이 열린 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전도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내 의식주 문제와 고민들이 많지만 모든 문제를 끝내고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복음은 앞선 3개 복음서보다 더 쉽게 쓰여 있다. 쉬워서 더 이르게 쓰였다고들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쓰였다. 그리고 복음의 깊은 내용을 현장의 경험들과 함께 쉽게 기록했다. 요한은 어려움과 핍박, 진도를 목상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구원, 용서와 성령, 성찬에 대해 쉽게 답아낼 수 있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전도와 복음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 ‘생명’, ‘빛’, ‘영생’과 같은 전도와 복음에 대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하여 많이 등장한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약 130회 정도 나온다.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세상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도와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제게 약간 더 고생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 갈등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30배, 60배, 100배, 천 배, 만 배로 만들어야 한다. 강단을 통해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찾고 응답받고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록목적이 있다. ① 첫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로고스)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 말씀(로고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복수형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형상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사탄, 지옥권세, 사망권세를 멸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② 두 번째 목적은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정확히 정리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며 전하는 말씀이 다 요한복음에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분을 말한다. 왕족은 왕이고, 노예의 아들은 노예다. 귀족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왕족의 신분은 왕이고, 노예의 신분은 노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참담하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느냐고 말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

1.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실 때 표현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과 같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라고 했다. 그게 ‘여호와, 아훼다. 여호와와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나라는 말을 들으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하신다. 이게 한국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걸 하나님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 주시는 것은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니케아공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시했다.

(2)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77가지 객관적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중에서 특별히 5가지 기적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만 하셨던 기적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기적을 행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과 전도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누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120년 간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②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③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다. ④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여주셨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두 광주리를 남겼다.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본질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다.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없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미래와 문제가 걱정될 때는 눈물로 기도하셔라. 하나님은 문제해결이나 응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주신다. 어려움 전에 미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란다.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을 누리고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바란다. 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는 물 위를 걸으신 표적, 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⑦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 모든 응답을 누리기 바란다.

2.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구원과 생명과 기도응답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1)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권세일까?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자격과 시민권이 주어진다.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시민권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성령내주, 성령인도, 성령역사가 우리의 신분이다. 권세는 따라온다.

(2)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엘리트이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로 거듭날 수 있다. 확실한 성삼위일체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을 알려 주고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로형이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며 용서받았고 지옥에 갈 수 없는 천국시민권자이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을 받지만 그것은 천국에 가는 심판이다.

(4)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탄은 도둑이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살인자이다. 사탄은 가정과 현장을 파괴시키고 짓밟는다.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란다. C.C.C 김준곤 박사님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말했다. 푸르고 푸르게 하려면 생명이 풍요로워져야 한다. 모든 삶이 풍성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어야 한다. 그 비결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절대주권자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는 게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도 걱정하고 의심하고 인본주의를 쓰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함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5)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성인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은 없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진리이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6) 또 요한복음에서는 기도응답의 비밀과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성경말씀을 붙잡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먼저 살아야 육신적인 응답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를 써야 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가. 믿고 확증하시기 바란다. 풍성한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풍성한 믿음이어야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성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끝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생명의 복음과 위로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고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현장에서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등대요 빛의 등대로서 땅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